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전 세계, 자연재해로 몸살

환태평양 조산대 잇따라 지진, 카리브해는 초강력 허리케인

태평양의 멕시코에서 시작,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는 세계 최대 길이의 지진대 ‘불의 고리’에서 최근 지진들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와 외신에 따르면 지난 19일, 멕시코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이틀째인 20일(현지 시간) 사망자가 220명을 넘어섰다.

20일 오후에는 뉴질랜드 남섬 세던에서 북동쪽으로 30km 떨어진 쿡 해협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같은 날 밤 대만 동부 화롄(花蓮)현 동쪽으로 74.6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 대만 전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다.

21일 새벽에는 일본 이와테(岩手)현 가마이시(釜石) 시에서 남동쪽으로 283km, 후쿠시마(福島)현에서 322k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났다. 같은 날 오전 인도네시아 제2 도시 수라바야 인근과 남태평양 바누아투 에로망고 섬에서도 각각 규모 5.7,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다.

한편 카리브 해에서는 초강력 허리케인 ‘마리아’가 들이닥쳐 섬나라 곳곳에서 지금까지 최소 9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푸에르토리코는 보름 전 허리케인 ‘어마’에 의해 이미 피해를 입은 상태로 또다시 맞은 ‘마리아’로 역사적 규모의 재난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는 20일(현지 시간) 홍수가 발생해 100명이 넘게 숨지거나 실종됐다. 또 티베트 고원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봄철이 빨리 와 홍수 등 환경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대기과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인용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하기도 했다. [GNPNEWS]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편 50:15)

기도 | 주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봅니다. 인생들이 아무리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더라도 자연의 재해 앞에 쓰러지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알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주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열방의 교회를 깨우시고 환난 당한 자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사 이때를 구원을 얻는 기회로 삼으소서.

다음호는 10월 22일자로 발행됩니다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양을



- 파키스탄에서

제공: WMM

말씀

한 마리가 셋노란 꽃 목걸이를 걸고 서 있다. 소머리에는 깨끗한 새 띠를 둘렀고, 붉은 수술도 달았다. 기쁨의 축제에 나아가기라도 하듯 단장한 소의 운순한 눈빛 너머로 두 귀를 길게 늘어뜨린 새하얀 염소들도 보인다. 다윗은 성전건축에 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수송아지 천 마리로 여호와를 송축했다. 히스기야는 잊혀졌던 유월절을 성대

히 지키며 수송아지 천 마리를 회중에게 주어 기쁨을 더했다. 솔로몬도 성전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 황소의 제물을 드렸다.

복음기도신문이 7주년을 맞았다.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뿌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다원주의와 인본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오직 그를 높였다. 매 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셨다. 성전 앞에서 일천번

제를 드린 솔로몬의 제사보다 더욱 큰 영혼의 찬양을 드린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빨과 굶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의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시편 69:30~31)

[GNPNEWS]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44)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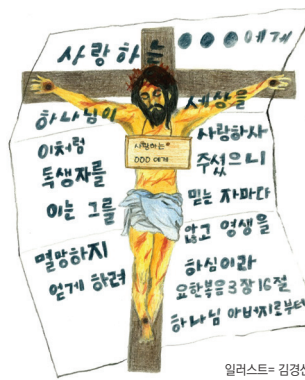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당신의 인생이 통째로 변화됩니다. ‘인생이 통째로 변화된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만약 대통령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엄청난 변화가 있겠지요? 당신의 직장도, 재정도, 사람들의 인정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인생 전반이 달라지는 겁니다.

대통령은 지금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가정을 했지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하건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증거가 있나 고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으로 드리지는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실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분이 죄 자체인 인간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고 죽음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유대 땅 어

느 한 곳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그의 탄생과 삶, 죽음의 모든 이유와 과정이 예언되어 있었으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예언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예언은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한 처절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사랑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통 속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당신 대신 잡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의 지옥행을 막을 길이 없었기에 아들을 당신과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이보다 더 충분하고 확실한 것은



일러스트=김경선

없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 당연히 인생 전부가 바뀝니다.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셔야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오세요. [GNPNEWS]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INSIDE

뉴스 | 오세아니아

호주,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 “뜨거운 대립” 2면

기획 |

영국교회의 공동화(空洞化), 사회복음 선택한 교회의 오류 3면

기획 | 창간 7주년 기념

“복음기도신문 발간 7년의 한결같은 기적, 주님의 은혜” 4면

복음기도신문, “열방을 먹여 살리는 영혼의 양식” 5면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의 영웅도 무력감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지만...”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오세아니아

호주,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 “뜨거운 대립”

테니스계의 전설, 목사가 되어 이성 결혼 지지



▶ 동성결혼 반대 입장인 마거릿 코트 목사(우)에게 TV 프로그램 'Channel10'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한 여성

호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찬반여부를 묻는 우편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 반대론자에 대한 거부가 집단화되고 있다. 호주 일간지 '더 웨스트오스트리안'은 최근 1970년대 총 24회 우승으로 세계 랭킹1위 여자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다 은퇴 후 목사가 된 마거릿 코트 목사(74)가 동성애 반대 의견을 발표한 이후 그동안 협찬해온 테니스 클럽이 지지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호주 테니스 연맹 테니스 웨스트의 CEO 마이클 로버츠도 이번 코슬로 테니스 클럽의 결정에 동의했다. 마거릿 코트 목사는 “외압에 의해 테니스 클럽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호주 국민은 이번 사건에 슬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도 사라질 것이며, 부활절은 물론 크리스마스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하지만, 결혼은 분명 남자와 여자 사이에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세상의 참에 동성혼 ‘찬성’을 표시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진다. 그러나 반대에 서명하면 벽돌이 날아와 창문을 깨는 상황이다. 2500만 명의 유권자를 생각하면 동성결혼에 반대표가 많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지만, 이미 호주에는 3만6천 명의 동성애 커플이 있다. 그들은 심지어 시민 조합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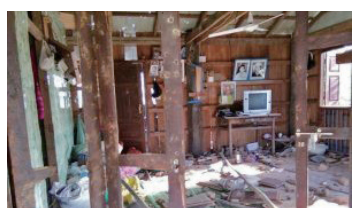
코트 목사는 지난 6월, “테니스계가 레즈비언으로 가득 차 있다.”는 발언으로 LGBT 옹호론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아이들이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주에서 벌어지는 이번 우편투표는 지난 12일 투표용지의 우편물 발송으로 시작돼 오는 11월 7일까지 회신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GNPNEWS]

아시아

미얀마 불교신자, 개종한 기독교 두 가정 집단폭행

미얀마에서 승려들을 포함한 150여 명의 불교 신자들이 최근 기독교로 개종한 이웃 7명을 집단폭행하고, 가옥과 가재도구를 파손했다고 모닝스타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모닝스타는 최근 북서부 사가잉 지역의 티 타우마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남자 3명, 여자 4명 등 두 가족이 돌과 몽둥이 등으로 구타를 당해 각각 얼굴, 머리 등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소유의 오토바이 3대도 파손됐다. 마을 주민들은 이들의 개종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찬송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찬송 소리가 집 바깥으로 새어나오자 이에 격분했다. 방문한 성도들은 이들의 새로운

믿음을 축하하기 위해 사흘간 함께 머물면서 숙식과 친교를 나누며 아침저녁으로 예배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음이 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자 출동한 경찰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말리지 않았다. 경찰이 보는 가운데서 이웃 마을의 또 다른 승려가 공격에 가담했을 정도였다. 오히려 경찰의 간섭이 군중들의 분노를 부추기기도 했다. 이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돈을 써서 매수하여 불교도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있다고 믿고 있다. 또 열혈 불교 신자들은 이들을 불교로 개종시키는 것을 종교적 사명처럼 여기고 있기도 하다.



모닝스타는 그러나 모든 불교도들이 이처럼 과격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것은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또 다른 승려의 신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건이 수습된 후 일부 승려들은 부상당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 여러모로 피해자를 보살피 주기도 했다. 피해 기독교인들은 파손된 가옥이 수리 되는 동안 교회에서 숙식을 하며 휴식을 취하며 심신을 회복 중이다. [GNPNEWS]

아메리카

미국, 백인 기독교인 인구의 50% 이하 하락

미국에서 백인 기독교인 인구가 전 인구의 5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종교 관련 여론조사 기관인 공공종교연구원(PRR)이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기독교인은 현재 전 미국인의 70%에 이르지만 백

인 기독교인은 43%로 크게 낮아졌다. 40년 전만 해도 미국인 10명 중 8명이 백인 기독교인이었다고 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편, 자신을 공화당원이라고 지

칭하고 있는 응답자의 4분의 3이 자신을 백인 기독교인으로, 3분의 1은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으로 응답했다. 반면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10년 전 47%였던 ‘백인 기독교인’이 현재 29%까지 줄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9.10 ~ 9.23)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만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ISIS, 리비아에 유럽 침투 근거지 마련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가 북아프리카의 주요 근거지들을 탈환 당한 이후 유럽 침투를 하기 위해 리비아에 여러 개의 비밀 조직을 만들고 불법이민조직들을 갈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님. ISIS의 완고해진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더 이상 악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시고 유럽 곳곳을 두려움으로 잠식시키려는 마귀의 음모가 십자가 복음으로 무너지길 강청합니다.

일본 '나홀로 결혼'하는 여성... "옆에 설 남자 없어도..."

일본에서 미혼인 30~40대 여성들의 '나홀로 결혼'을 겨냥한 웨딩서비스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13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이들은 결혼식과 사진 촬영을 위해 약 30만 엔(약 306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쓰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50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을 존재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결혼을 자기만족 수단으로 사용하길 원하여 나 홀로 결혼을 행하는 일본 여성들의 공허한 마음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미얀마 탈출 로힝야족 난민 급증세 지속... 37만 명

미얀마군과 로힝야족 반군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의 유혈 충돌을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 수가 지난달 25일 이후 20일간 37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유엔난민기구의 말을 인용해 AFP통신이 보도했다. 주님. 미얀마군과 로힝야족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유혈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피해만을 주장하며 더 큰 고통을 주고야 마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만이 이들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려주시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7년 10월 2일 ~ 10월 21일

<p>10월 2일~7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광주 / 십자가사랑교회 (김**)010-6280-4419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 (전**)010-5337-2771 10.2~3,5-6(매일 10시~12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10.2-6(매일 14~19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10.4(06시~12시)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10.4(00시~24시) ▶ 경기 수원 / 진흥교회 (남**)010-8268-6879 10.5-7(매일07시~19시) ▶ 전북 전주 / 전주은혜성교회 (정**)010-4272-9905 10.6(08~20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10.6(22시)~7(22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10.7(06~18시) ▶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 (강**)010-5408-6348 	<p>10.11(06시~12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김**)010-3290-4316 10.9~11(매일 09~21시) ▶ 전북 남원 / 은혜의성교회 (위인아)031-432-1590 10.13(08시~20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10.13(22시)~14(22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p>10월 16일~21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신안 / 열방성교센터 (강**)010-7364-9982 10.16~17,21~22(매일10시~12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10.16~20(매일14시~19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10.16~20(매일07시~23시) ▶ 강원 강릉 / 은강교회 (박**)010-7439-7020 10.17(09시)~19(24시) ▶ 강원 춘천 / 참빛사랑교회 (박**)010-7439-7020 10.18(매일06시~12시)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10.19~20(매일06시~18시) ▶ 전북 전주 / 사론교회 (박**)010-7439-7020 10.20(매일08시~20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10.22(22시)~23(22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p>10월 9일~14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9~10,12~13(매일10시~12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10.9~13(매일 14~19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10.9~13(매일 09~24시) ▶ 전남 광주 / 십자가복음교회 (김**)010-9883-2347 	

영국교회의 공동화(空洞化), 사회복음 선택한 교회의 오류

우리나라는 물론 열방이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다. 이때 교회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이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믿음의 선배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귀 기울이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1899-1981) 목사는 그의 책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복있는사람 刊)’를 통해 교회의 설교가 그리스도를 놓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발췌, 요약한다. <편집자>

저에게 재미있게 들리기까지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는 줄이고 다른 다양한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제안을 아주 새롭게 여기면서, 설교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현대성의 표지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간단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형태는 새로울지 몰라도 원리는 전혀 새롭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20세기는 이것을 특히 강조해 왔습니다.

복음의 사회적 적용에 대한 이 모든 새로운 관심, 즉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정치를 논하며 사회적 사안 등에 개입하자는 견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에 대한 간단한 답변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도 대부분의 서방 국가에서 이런 견해가 유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회 복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지금의 주장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케케묵은 복음 설교는 너무 개인 중심이고 단순하며 사회 문제나 상황을 도외시한다!’고 주

장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과 주님을 자유주의와 현대주의, 고등 비평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람들의 견해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완벽한 인간이요 위대한 선생에 불과한 분으로, 정치적 선동가이자 개혁가이며 위대한 본보기에 불과한 분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은 선을 행하려 온 인물이며 산상 설교는 법률과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새로운 주장으로 간주되며 교회의 주된 임무로 간주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상 20세기 초반에 이미 철저히 시도된 것들입니다.

복음 설교는 케케묵었다?

교회 활동과 삶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다양한 다른 매개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접근법으로 지지받고 있는 것들은 이른바 ‘복지시설 교회’가 이미 시험을 마친 것들이며, 그것도 상당히

철저한 시험을 마친 것들입니다. 교회 내에 각종 문화 단체들이 마련되었고, 교회는 사회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름의 운동경기와 모임들을 조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14년 이전에 이미 철저한 시험을 거쳤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시도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그것이 전부 실패했다는 것, 완전한 실패작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상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영국과는 약간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교회들을 텅 비게 만든 책임은 대부분 ‘사회복음적인 설교와 복지시설 교회’에 있었다고 주저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보다 큰 책임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단지 정치, 사회적 개혁과 평화주의를 전하는 것이라면 굳이 교회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당연히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일은 정치 단체에서도

능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 정당에서 그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완벽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주된 임무를 버리고 다른 일을 한다면, 아무리 그 동기가 순수하고 훌륭하다고 해도 결과는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 동기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이론이 추구하는 결과와 실제 결과는 사실상 상반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 사회가 이 모양이 된 책임의 상당 부분이 교회가 설교에서 떠나버린 데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교회는 복음에 토대를 두지 않은 도덕과 윤리를 설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경건이 없는 도덕을 설교했고, 결국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시도는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임무를 포기한 교회는 결국 인류가 자기 꾀를 좇아가도록 어느 정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복음 선포에서

이 점에서 제가 예증하려는 또 하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설교에서 돌이켜 이러한 수단들로 향하는 순간, 끊임없는 변화에 휘둘러 갈질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 중 하나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보고 흥분할 때 자신도 40년 전에 그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인기 있는 풍조나 유행이나 물결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합니다. 새로운 유행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크게 흥분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가득 채우는 방법이며 문제 해결 방책이라고 크게 선전합니다.

그렇게 너나없이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몇 년 후에는 또 전부 잊어버린 채 또 다른 물결, 또 다른 새로운 개념에 빠져듭니다. 누군가 필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내거나 현대인을 이해하는 심리적인 통찰을 얻으면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해결책인 것처럼 저마다 그리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것도 금세 한물가 버리고 또 다른 유행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교회도 세상처럼 끊임없는 유행의 변화에 휩쓸린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와중에서 교회는 지금껏 그 영광이 되어 왔던 메시지의 지속성과 견고함, 안정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 정치적 상황과 개인의 행복 등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실행된 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개혁되며 진정한 설교가 선포되었던 때였습니다. [GNPNEWS]

요약. 임치운 목사



▶ 출처: Desiring GOD 캡처

인도 오디샤 주 폭동 9년 후... ‘돌아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 출처: Voice of the persecuted 캡처

인도 독립 이래 역사상 최악의 기독교 박해 사건으로 여겨지는 2008년 인도 동부 오디샤(Odisha) 주의 폭동이 최근 9주년을 맞았다.

사건의 발단은 2008년 8월 24일, 비쉬와 힌두의회 대표인 락쉬마나

난다 사라스와피의 죽음이 그리스도인 때문이라는 잘못된 소문이 오디샤 주에 퍼지면서부터였다. 그 이후 반기독교적인 폭동이 칸드하말 전역에 걸쳐 벌어졌다. 석달 동안 지속된 이 폭동으로 인해 적어

도 91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됐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도끼와 칼로 난도질 당해 숨졌다. 최소 3명의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윤간 당했다. 수많은 폭도들은 5천 개가 넘는 집과 300개 이상의 교회를 불태웠고, 이에 따라 5만6천 명의 사람들이 산 속으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 폭동에서 살아남은 프라딕 나약 목사는 국제 크리스찬 컨선(ICC)에 “우리는 여전히 테러 가운데 있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시장 구석구석에서는 여전히 반기독교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라즈 키쇼어 목사는 “그 시간들은 제 생애 가운데 가장 무서웠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웃 마을에 큰 화염과 짙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 표적이 우리 마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서둘러 도망쳐야 했습니다. 우리는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뺨뺨한 밀림을 헤치며 태어난 지 20일 된 아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40km를 걸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크리스찬 잔칼란 사미티 칸드하말’이라는 단체의 대표인 수란잔 나약은 “이 폭동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내쫓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매우 많은 사람들의 집이 부서지고 불에 탔는데 폭동 이후 정부가 피해 상황을 조사하는 동안 마을을 떠나 있던 많은 사람들은 피해가구 명단에 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고 자신들의 집을 재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 칸드하말은 여전히 평화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ICC와 인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따르면,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최악의 폭동을 경험한지 9년이 지났지만 많은 희생자들은 차별과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으로 그들이 경험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인도 ICC의 한 관계자는 “2008년 폭도들에 의해 마을에서 내쫓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힌두교로 개종하겠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여전히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도 정부는 이들의 황폐해진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GNPNEWS]

번역. 국제팀

창간 7주년을 돌아보다

복음기도신문, 어디까지 갈까?



▶ 현재 복음기도신문은 세계 16개국에 3만 부가 발송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발간 7년의 한결같은 기적, 주님의 은혜”

2010년 창간된 구독료 없는 신문

“여보세요. 복음기도신문이죠. 구독하고 싶은데요.”
 본지를 제작하고 있는 선교회 사무실에는 구독신청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온다. 교회 로비에 놓여 있던 신문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가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 복음기도신문을 손으로 전해주던 분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아예 직접 구독을 요청하신 분. 거리나 지하철에서 노방 전도자가 내민 이 신문을 우연히 받아 보았다가 그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 보고 싶어 신청하신 분 등 사연은 정말 다양하다.
 이같은 구독 신청자들에게 구독료를 받지 않고 현금제임을 알리면, 어떤 분들은 당황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동안의 은혜를 나눈다. 값없이 받은 복음을 조건 없이 흘러보내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셨음을 고백한다.
 사실 독자들이 구독료를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창간 초기, 신문을 발간하는 복음과기도미디어 선교사들이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현금제’였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거저 주셨듯이 기쁜 소식을 담은 신문도 거저주라는 것이다. 대신 신문제작의 원칙을 세웠다. 신문 인쇄 재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종이신문을 발간하지 않고 대신 인터넷 신문만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7년간 재정이 허락되지 않아 인터넷 신문만을 만든 적은 없었다. 주님의 은혜다.

수십 명의 동역자 섬김으로 신문 제작

본지는 창간호부터 격주간 8면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면수는 처음과 동일하지만, 지면 구성과 기사 형태는 다양한 변화를 거쳐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특히 본지의 레이아웃은 2013년을 전후로 크게 달라졌다. 당시 대학에서 편집디자인 강의를 하는 한 동역자가 본지 사무실을 방문, 몇 가지 원칙을 조언했다. 그의 도움말을 통해 큰 깨달음이 있었다. 우리가 레이아웃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더없이 감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물론 전문가들이 볼 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지면 구성의 포인트를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었다.
 신문이 발간되고 나면 평가회의를 갖는다. 지난 호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주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를 나누며 다음 호 기획회의를 한다. 이때 국내외 본지 통신원들의 도움을 받는다. 본지 통신원들은 국내외에서 인터뷰(인터뷰 대상자) 등 믿음의 증인들을 소개해준다.
 또 본지 제작을 위해 참여하는 동역자도 다양하다. 삽화 등으로 도움을 주는 일러스트 전문가, 메시지 정리, 기록 서적과 영화, 명화 평론 등 다양한 영역의 정기기고가, 영어 일어 번역전문가 등 수십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동역자의 섬김으로 한국어판(gnpnews.org) 외에도 영어판(english.gnpnews.org)과 일어판(japanese.gnpnews.org) 신문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 2010년 복음과기도미디어 단체에게 주신 비전을 복음기도동맹군들과 나누는 모습

열방 보발꾼 동역자와 함께 3만 부 배송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증인들의 삶과 열방의 소식을 담은 본지는 초창기 동역자들에게 신문지국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를 일컫는 보발꾼(역대 하 30:6)으로 자원한 수백 명의 독자들이 처음에는 수십 부에서 수백 부씩 받아 전국 방방곡곡과 해외까지 직접 신문을 배포했다. 한때 한 항공사에 근무하는 동역자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에 직접 배송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현재 동역하고 있는 보발꾼은 3천여 명. 이들에 의해서 뿌려지는 부수는 3만 부에 이른다. 본지는 독자들에게 최소 2부 단위로 구독하며 1부는 전도에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발송부수는 2부, 20부, 100부에서 500부까지 다양하다.
 이같은 보발꾼의 활동으로 교회에서,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신문이 배포되고 있다. 이렇게 배포된 신문을 통해 맺히는 열매도 풍성하다. 지하철에서 본지를 보게 된 한 분은 신문에 게재된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 도전을 받아 복음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고 전해왔다. 또 교회에서 주일이나 새벽기도 시간에 본지 신문을 활용, 정기 기도 모임을 하면서 열방의 상황에 대해 눈을 뜨고 기도하게 됐다는 독자도 있다. 한 목회자는 새벽기도를 마치고 본지를 전도지로 삼아 호별 방문 전도를 하고 있다. 교회 근처 지역을 매일 전도하고 있다는 한 목회자는 “전도지로 전도하면 지역주민들이 전에 봤던 내용이라고 거부감을 표시하곤 했는데, 복음기도신문으로 전도한 이후 거부감이 없으며 나중에는 신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본지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태평양 등 5대륙 24개국에 신문을 발송하고 있다. 해외 구독자들에게는 배송료를 받고 있으나, 현장 선교사들에게는 2부에 한해 무료로 발송하고 있다.

신문 외에도 기도정보와 전도지 제작, 배포

본지를 발간하는 선교단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2010년, 다원주의와 인본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열방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미디어가 필요하다는 비전으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7년의 회고에서 주님이 허락한 최고의 열매는 미디어

선교사로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화려한 미디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높이라(잠언 4:8)’는 명령에 순종하며 오직 복음과 기도만을 추구하는 미디어선교사로 현신은 현재 3기까지 이어졌다.

본 선교회는 또 2010년 10월 3일 복음기도신문 창간호를 발행한 이후, 이러한 비전에 부합하는 단행본과 영상물을 제작해 왔다. 단행본으로는 열방을 품은 중보기도자를 위한 기도정보집 ‘느헤미야52기도’와 기도정보 ‘경건의 열망’ 등 다양한 기도정보집을 제작, 보급해왔다. 최근에는 전도자를 위한 책자 ‘쏟아주는 전도편지 100’을 발간했다.

또한 본지를 읽고 신앙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을 위해 상담 전용 전화 서비스 복음의 소리 ‘316전화’(☎ 1670-3160)를 올해 개통했다. 이 전화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본지 직원 전화상담 요원들의 섬김으로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나 복음의 삶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을 들을 수 있다.

미디어 사역 통해 확인한 주님의 은혜

본 선교회는 신문 외에도 물품을 국내외에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맡기도 했다. 외국어로 제작된 성경을 전달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수민족의 어린 고아들을 위해 의류나 물품 등을 해외에 직접 전달했다.
 믿음 재정으로 시작된 사역을 이어오면서 주님은 우리 공동체에 다양한 은혜를 허락하셨다. 특히 재정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신문발간과 발송 작업을 진행하면서 거의 매호마다 기적적으로 인쇄와 발송 작업을 마치도록 인도하셨다. 현재 격주마다 신문을 분류하고 봉투에 넣고, 박스에 포장하는 발송 작업은 수십여 명의 동역자가 참여해 두 시간 내에 이뤄지고 있다.

지난 7년간 일어난 에피소드도 다양하다. 우리 사역보다 더 다급한 영역에 모든 재정을 헌금하고 난 이후, 기적적으로 신문인쇄비가 채워진 일. 신문 인쇄는 마쳤으나 발송 비용이 없어 봉투작업을 끝마친 신문을 쌓아두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일. 또 초창기에 몇백 부씩 요청하는 독자에게 보낼 신문을 포장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종이박스를 구하다가 어려움을 겪던 일. 그래서 한 부 한 부가 정말 소중하게 사용되기를 기도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100부 이상의 독자를 위해서는 부수별 전용 박스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기도과 물질로 마음을 함께 하는 동역자 중 창간 초기부터 7년째 일정한 금액을 변함없이 후원하시는 분, 몇천 원을 몇백 몇십원 단위까지 가진 것 전부를 입금해 주셨던 후원자, 갑작스럽게 사무실에 방문해 현금봉투를 주고 가셨던 분. 정성스러운 편지와 음식 등으로 마음을 나눠주셨던 분. 다양한 동역자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지금까지 외롭지 않은 든든한 길임을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셨다.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한 것처럼, 미디어 사역을 통한 주님의 역사는 주님의 주권이었으며,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오셨음을 고백한다. [GNPNEWS]

발행인 김강호 선교사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복음기도신문, 열방을 먹여 살리는 영혼의 양식”

“ 좋은소식은 추숫날에 얼음냉수와 같으니라!

대기오염으로 숨 쉬는 게 꺼림칙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 마음 놓고 선택할 정보가 희귀한 때에 안심하고 추천할만한 미디어! ‘복음기도신문’

답답하고 암울하기만 한 뉴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들로 가득이나 어려운 세상에 어두움을 더하는 때. 기쁨의 좋은 소식, 하늘의 메시지를 이 땅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기도의 숨결로 이어주고! 작은 영웅들, 무명의 복음의 용사들의 무용담을 실어 영혼의 양식 삼아 열방을 먹여 살리는 ‘복음기도신문’.

그래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현장으로 출발할 때, 꼭 챙기는 짐목록에 ‘복음기도신문’이 우선한다!

안심하고 읽으세요. 보기 좋은 곳에 놓고 보고 또 보세요. 신문 한 구석, 한 자도 놓치지 말고 보세요. 그리고 기도가 되기까지...

“이 신문은 보고 또 보게 돼요. 그때마다 새로워요. 그리고 내 마음이 시원하고 뭉치 모를 위로가 돼요.” 어느 독자의 고백에, 마음속에서 ‘그거? 복음기도신문이라서 그래요!’

보발꾼 김용의 선교사(LOG미션 대표)



▶ 본지 지역자들과 동역자들이 복음기도신문으로 기도하는 모습

복음기도신문을 읽는 시간, 보화를 받는 시간

복음기도신문은 우리 교회나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소유할 수 있는 기쁨을 주는 신문입니다.

신문을 받은 주일엔 오후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읽고 기도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질병으로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목사님에게 매주 수요일마다 신문을 읽어드리기도 했는데, 모든 내용을 듣고는 은혜 받고 복음기도신문을 전도지로 꼭 사용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 신문 발송을 위해 배송 부수에 따라 봉투와 상자에 넣는 포장작업을 동역자들과 함께 한다. 사진은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하는 모습.

행복한 삽화 섬김이의 고백

저는 복음기도신문에서 삽화를 섬기는 김경선 자매입니다. 먼저 창간 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전문가의 실력도 아니고, 삽화를 섬김 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난 후, 그림은 제게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만난 후, 배운 게 다 쓸모없다 여겨져 ‘그림을 그려도 될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을 통해 삽화 섬김이로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삽화 요청 연락이 언제쯤 올까?’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림 실력을 자랑하고 싶고, 욕심만큼 안 돼서 속상하고 투덜거릴 때도 있었습시다. 그림에도 주님은 제 그림을 신문에 신게 해주시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 섬김이 가볍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얼마전 선교훈련 과정을 마치며 몸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을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음란한 동영상을 보았는데, 결과는 너무 허무했고 주님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완전한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되는데, 뭘 더 바랬는지요. 이런 은혜로 저는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냅니다. 주님이 저의 눈과 입, 생각, 마음, 손, 발이 되셔서 주님만 남는 섬김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김경선 자매(일러스트레이터)

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신문, 성도로 기도하게 하는 신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문을 정보로만 읽는 수준이 아니라 기도까지 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문은 복음기도신문밖에 없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겐 엄청난 보화를 받는 시간입니다. 상가에서 장사를 하다 이 신문을 받아보던 어떤 분은, 이제는 제가 몇 부 드리면 본인이 상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기도 합니다.

7주년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신문이 나오기까지 엄청 수고하실 것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계속 쉬지 않고 힘주실 것 믿습시다.

복음기도신문에 기대하고 싶은 건 전도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쉽게 보고 구원의 소망을 갈망할 수 있는 기사들이 좀 더 있었으면 합니다.

신유정 목사(마하나임심대교회)

하나님의 명령을 듣도록 외치는 신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4)

복음기도신문 창간 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복음기도신문의 지난 7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도록 외쳤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결국은 온 열방에 임하

실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길이었겠지요. 복음기도신문의 한 칼럼을 맡겨주셨던 2011년부터, 저 역시 이 명령에 무릎을 꿇게 하였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성숙되도록 만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사실 저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자격도, 지식도 없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여러 과정과 조치를 취하셔야 하셨습니다. 그 통로 중 하나가 바로 복음기도신문입니다. 신문을 통해 제게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회개케 하였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경험과 논리보다는 소망을 보게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문을 받아보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신실한 사랑을 부어주시리라 믿으며 소망합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막 오고 계시는 생생한 현장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상윤 집사(미술평론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신문을 보는 기쁨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최정숙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복음기도신문을 매호 빼놓지 않고 보았습니다. 복음기도신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기사와 간증을 매번 볼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전부이고 기쁨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만난 후, 복음을 전하고 싶어 몇몇 목사님들께 이 신문을 처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복음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대형슈퍼 한 귀퉁이에 신문을 비치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고 위로받기를 기도하며 택하게 하신 장소입니다. 그곳은 기독교 관련 소식지, 테이프뿐 아니라, 이단, 세상 여러 신문들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져가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아직 과정 중이고 열매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신문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신문을 매번 만드시고 보내주시는 여러 분들께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정숙 집사(캐나다 거주)

배움의 동역 통해 섬김 받은 시간들

복음기도신문과 동역해 온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동역했다는 말보다 오히려 섬김을 받았다는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의 비밀을 복음기도신문과의 동역을 통해 배웠기에 동역은 ‘배움’이었고, ‘섬김 받음’이었습니다.

내가 맡은 파트를 감당하기 위해 우선, 내게 넘어온 초고(草稿)를 작성하신 분의 수고가 선행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리해 넘긴 원고를 다듬어 주시는 분, 이 글에 꼭 맞는 삽화를 그리시는 분, 종이신문으로 제작하시는 분, 분초를 다투어 배송하시는 분 등 여러 동역자들의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어떤 동역자들과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잘 보이지 않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세워 간다는 것입니다. 격주마다 발행되는 복음기도신문을 보면서, 이 신문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때문에, 나의 동역자들도 나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이면 충분합니다.

편해운 목사(처음사랑교회)



▶ 7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변화된 복음기도신문 디자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로템나무 아래(1)

“믿음의 영웅도 무력감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지만...”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라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위엄과 심판을 강력하게 드러내었다. 그는 갈멜산의 영웅이었다. 그랬던 그가 한 순간에 급전직하(急轉直下)하여 로템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다. “여호와여 너의 하소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왕상 19:4)

구약 성경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왕들의 대부분은 거론할만한 가치가 별로 없다.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말았다. 실상가상으로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죄, 곧 금송아지 숭배에 그치지 않고,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와 온 나라를 더럽혔다. ‘여로보암의 죄’로 이미 사형을 언도 받은 판에 악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여호와와의 이름을 저주하던 아합의 시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치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역사의 한복판으로 엘리야를 소환하셨다.



일러스트=임이람

그의 일생 가운데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갈멜산 대결, 그는 홀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상대했다. “너희는 너희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왕상 18:24)

사람이 만든 신, 바알이 불을 내릴 리 만무했다. 엘리야는 모든 가능성을 제하고자 제단과 도랑에 가득하도록 열두 동이의 물을 부

었다. 그리고 간단하게 기도했다(왕상 18:36).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고, 모든 백성들은 경악하며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로다’ 외쳤다. 바알 선지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기손강가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다. 이윽고 3년 6개월간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다.

이 큰 기적을 보고도 아합이 깨닫지 못할까봐 엘리야는 60km나

되는 거리를 아합이 탄 병거보다 더 빨리 달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아합도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져야 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악독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협박(왕상 19:2)에 ‘영웅’ 엘리야는 살기 위해 광야로 도망친다. 그리고 하룻길쯤 가다가 로템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 죽기를 원한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번 아웃(burn out) 된 것이다.

천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기력을 회복한 후 하나님의 산 호렵에 이르렀지만 엘리야는 굴속에 은둔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와의 말씀이 임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왕상 19:9)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하고, 기적의 한복판에 있었던 ‘영웅’ 엘리야가 서슬 퍼런 이세벨의 독기 앞에서 완전히 소진한 이 기막힌 상황,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아합 시대의 반역과 타락상은 영웅적인 엘리야라도 두려움과 무력감으로 주저앉히기에 충분했다.

복음을 만난 후, 목숨 걸고 순종했지만 열매는커녕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악은 더욱 기승을 부리면, 누구라도 엘리야처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엘리야를 찾아가셨던 하나님은 지쳐서 무력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비전까지 상실해버린 복음의 증인 ‘한 사람’을 찾아가신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2016. 7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선교 통신

유럽의 무슬림 이민자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 여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특히 스페인 말라가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이루어졌던 성경 보급사역은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라가에서는 성경 패키지 350개와 성경을 담은 USB 3000개를 무슬림 이민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마르세유에서는 성경 패키지 2700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까?”라는 질문이 있는 작은 전도지도 3500장 나누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15일 정도 더 사역이 이어지면 더 많은 양의 성경 말씀이 유럽과 아프리카를 오가는 무슬림들에게 전달되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사역에는 한국인 세 팀, 미국인 두 팀, 이집트와 튀니지 팀이 함께 연합했습니다. 사역에 임하셨던 분들은 하나같이 이와 같은 사역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무슬림들을 대하는 것이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받아가는 손길들과 정답게 인사를 받아주는 무슬림들을 통해 적지

않은 위로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대륙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사역 중에 우리는 참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경험했습니다. 한번은 무슬림 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말라가 항구에서 성경을 나누어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차에서 쉬고 있었는데, 차 번호판을 보니 네덜란드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프랑스어와 아랍어로 된 성경 패키지를 권했다니 저에게 무슨 종교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개신교라고 대답했는데, 그 후 이들은 자신의 궁금한 것들을 약 30분간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질문했던 것 중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성경을 보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몇 부분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



▶ 무료로 나누어 준 성경을 들고 있는 중동 난민 어린이(출처: worldhelp 캡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그들이 즉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가진 질문을 많은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마르세유에서 사역한지 이틀째 되었을 때는 알제리로 떠나는 승용차에 타고 있는 4명에게 성경 패키지를 권한 적이 있습니다. 운전하고 있던 아들이 기쁘게 받아서 옆에 앉은 아버지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감사의 말을 건네

고 돌아서는데 아들이 다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가갔더니 “아버지께서 뒷자리에 있는 어머니에게도 패키지 하나를 주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띤 무슬림 가족이 성경을 받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 가족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GNPNEWS]

스페인= 남사현·이현진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7. 9. 7 ~ 2017. 9. 20 (가나다 순)
개인
강은진 권혜령 김민성 김사회 김선희 김수미 김승수 김영세 노옥희 서법일 안병윤 유자인 이경희 이복길 이영선 이은주 이지영 임종태 장근혜 장영선 정영숙 정윤희 조상국 최정숙 허금희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그리스도의편지교회 김포전원교회 마중물교회 시흥지체교회 은혜선일교회 전능자의그늘미네스트리 주만교회 춘천험시바교회 하원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재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청소년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열심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가뭄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던 지난 5월, 주님을 사랑하고, 다음세대를 복음 앞에 세우시려는 주님의 열심을 아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번듯한 조직,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때가 되면 늘 이렇게 모여 청소년 복음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모이면서 제 개인적으로 큰 설렘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훈련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숙소가 비좁아 교육관을 확장하고, 여러 문제가 있던 세면장도 새로 지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정을 정하고 모집 광고를 내고 원서들을 기다렸지만 이상하게도 문의 전화도 오지 않고 원서마감일까지도 원서가 겨우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습니다.

언젠가 지구 반대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청소년 복음수련회를 준비하시는 선교사님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훈련생들의 수가 너무 적어서 수련회를 접자는 의견이 있다며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별다른 고민 없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한 사람을



제공: 서선미

위해서라도 복음은 들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요.

우리 고백을 확인하는 듯 한 상황

합격자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지원을 해도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던 우리의 고백들이 실제인지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4박 5일간 교회의 시스템을 멈추면서까지 한 사람을 위해 섬기겠는가? 한 영혼이 복음을 들도록 섬김이 모두가 가까이 대까지 불을 하여 섬기겠는가? 주님은 섬

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멘이라는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수련회 기간 동안 교회의 모든 공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새벽기도회를 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생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성도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제 마음의 문제를 보게 하셨습니다. 수련회와 새벽기도를 병행하면 전심으로 섬길 수 없을 것 같은 제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훈련생 4명, 섬김이 12명. 아이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그동안 섬김이들이 입었던 붉은 조끼를 벗고 모두가 함께 강의 시간에 참석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도들에게 많은 중보기도를 요청하였고, 섬김이로 참석한 두 분 목사님께도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전심의 순종은 우리의 몫

부모님의 강요로 억지로 끌려온 듯한 학생들은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학생들의 마음을 불드셨고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소수의 인원이라 강의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휴식 시간도 넉넉하게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선 학생들을 보는데 벽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성전에 가득했던 훈련생들을 보는 그 감격과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내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아시고도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수가 적다고 자기 책임을 소홀히 여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어 갑자기 주방을 섬기셨던 집사님은 육체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

님의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시간을 내어 학생들을 위해 맛있는 밥을 해주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친 후, 한 사람을 향한 열심은 처음부터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군대 귀신들린 청년을 위해 갈릴리 바다를 건넌던 예수님. 또한 무고하게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로인해 간수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열심처럼 말입니다.

더 많은 다음세대가 복음을 듣는 것이 변하지 않는 제 꿈이지만, 하나님은 제게 다음 세대 전부를 책임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허락하심 앞에 마음 다한 순종이 그저 우리의 몫임을 알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GNPNEWS]

최종덕 목사(문광교회)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평양에서 부흥회 한번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지하교회 지도자와의 만남

한밤에 조심스럽게 약속된 장소로 건너갔다. 강가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곳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아무 말 없이 강가에서 있는 그분의 손을 잡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얼마나 만나 뵈고 싶었던 분인가!’

그분은 70을 넘긴 할아버지 지도자였다. 소식을 들은 지 5년 만에 이렇게 만나 뵈게 된 것이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성도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런 일인데, 지도자를 만난 것은 북한의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자에게 영광이 아닐 수 없었다. 그분은 북한의 한 지역에서 많은 성도들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였다.

“선생, 1년에 두 번씩 하던 셋째 주일 금식 기도를 이제 매달 하면 좋겠지요?” “무슨 일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내래 기도할 때마

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요.”

지도자는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외우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와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목은 땅을 갈고 가시땀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돌아오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도자의 열굴에는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견뎌온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민족의 파멸을 예언해야만 했던 예레미야의 아픔이 북한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그분에게서도 동일하게 느껴졌다.



▶ 기도하는 북한 성도.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 모퉁이통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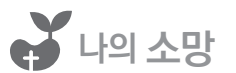
북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그분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이셨는데 대뜸 이렇게 물으셨다. “선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요. 근데 남조선 땅에 있는 선생처럼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소?” 그 순간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니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물음은 지독한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은밀하게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북한 성도들을 돌보며 이끄는 지도자의 아픔이기도 하였다. 북한에서는 성도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그 성도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남한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코끝이 시큰해졌다.

“선생, 북조선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땅에 뿌려진 피의 열매가 거둬지도록 해 주십시오. 마음 놓고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양에서 부흥회 한번 안 열리나...’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내용이 디요.” [GNPNEWS]

<출처: 붉은 예수쟁이(문광서원)>



깨닫는 순간, 떨어져 나간 쇠사슬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 그는 회심 이전 교회는 다녔지만 저주와 욕설, 거짓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했다. 성경을 읽다 하나님께 받을 형벌이 두려워 자기 언행을 바꾸려 노력했고 경건해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기쁘시게 해드릴 사람은 없다.’고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낙네들의 거둬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진짜 회심을 갈망하며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한다. ‘나로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걸코 맺을 수 없다.’ 기도 중에 ‘의는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때 자신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GNPNEWS]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2017 다시복음앞에

‘다시 복음앞에’

RETU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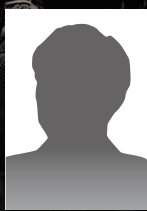
to the GOSPEL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로마서 1: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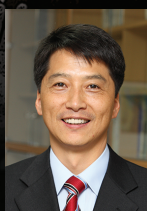
‘오직 믿음으로’

2011 다시복음앞에 ‘오직 복음으로’
2013 다시복음앞에 ‘오직 성경으로’
2015 다시복음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2016 금식기도성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강사진 | (무순)



P.A.V.국 선교사



이재만 교수
(창조과학선교회)



이태희 목사
(그안에진리교회)



김정화 선교사
(전능자의그늘미니스트리)



박종진 선교사
(헤브론선교대학)



조원순 선교사
(헤브론원형학교)



민경동 장로
(전 에스라성경대학원
대학교 총장)



임석순 목사
(한국중앙교회)



하종부 목사
(남서울교회)



김용의 선교사
(LOG Mission)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김관영 목사
(문화행동아트리)



배철희 목사
(중신감리교회)



하도균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2017. 10.31-11.03

장소 | 선한목자교회 (담임: 유기성 목사)

주관 | 복음기도동맹

주 제 : ‘오직 믿음’ (로마서 1:17)

주관.주최 : 복음기도동맹

참가비 : 현금

참가신청 : 온라인(www.gpally.org)접수
(선착순 마감)

문의 : 복음기도동맹 사무국

010-5938-4641

070-5056-3208

이메일 gpall@daum.net

